

08 2027학년도 고입

특목고를 보내야 하나

판단 기준 · 제도가 바뀐 자리부터

- ◆ 이 자료는 **무료**입니다.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.
- ◆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. **예측하지 않습니다.**

CONTENTS

01	바뀐 것부터	2
02	무엇을 고르는가	3
03	내신 5등급제	4
04	판단 기준	5
05	자주 묻는 것	6

무엇이 들어 있나

- ◆ 조기진학자 지원이 막힌 자리 — 서울대·연세대·고려대·KAIST·학교장추천전형
- ◆ 다섯 갈래와 **지원할 수 있는 횟수** (영재 8 · 과학고 22 · 외고 28 · 국제고 8 · 자사고 33)
- ◆ 내신 5등급제로 유리해졌나 — **학업중단자 추이와 그것으로 단정하면 안 되는 까닭**
- ◆ 보내기로 정하기 전에 물을 것 셋 · 점검표 여덟 가지

01 · 바뀐 것부터

옛 모델은 상당 부분 막혔습니다

「과학고 가서 2년 만에 졸업하고 의대 간다」

아직도 이 말을 믿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. 그 길은 **상당 부분 막혔습니다**. 판단을 하시기 전에 이것부터 아셔야 합니다.

어디가	무엇이 막혔나
서울대·연세대	조기진학자 지원 제한
고려대	2025학년도부터 조기진학자 지원 제한
KAIST	2026학년도부터 조기진학자 수시 전 전형 지원 불가
학교장추천전형	과학고·영재학교 출신은 조기졸업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불가

조기졸업으로 얻는 「1년」이 예전만큼 값이 없어졌습니다. **2년 만에 나가려고 특목고를 고르는 판단은 이제 성립하지 않습니다.**

왜 이렇게 됐는가

조기졸업은 원래 **드물게 쓰는 예외**였습니다. 그런데 그것이 「1년 먼저 대학에 간다」는 목표로 굳어지면서 학교의 교육과정이 흔들렸습니다. 3년치를 2년에 몰아 듣느라 **연구 활동과 실험이 뒷자리로 밀렸습니다.**

대학이 문을 좁힌 자리가 여기입니다. 과학고·영재학교를 만든 까닭은 **과학을 깊게 하라는 것**인데, 조기졸업 경쟁이 그 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. 제한은 벌이 아니라 **원래 자리로 돌리는 장치**에 가깝습니다.

그러면 아무 값도 없어졌나

그렇지 않습니다. 다만 **값이 있는 자리가 옮겨졌습니다.**

남아 있는 것은 **교육과정 그 자체**입니다. 일반고에 없는 고급·심화 과목, 실험 장비, 3년에 걸친 연구 활동, 그리고 **같은 것에 관심 있는 또래**입니다. 이것들은 제도가 바뀌어도 그대로 있습니다.

그래서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. 「**몇 년 만에 나갈 수 있나**」가 아니라 「**이 3년을 쓸 아이인가**」입니다. 뒤에서 그 기준을 드리겠습니다.

출처: 각 대학 2026·2027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. 해마다 바뀌니 지원 연도의 요강을 확인하십시오.

02 · 무엇을 고르는가

다섯 갈래와 지원할 수 있는 횟수

「특목고」라고 뭉뚱그려 부르지만 안에 다섯 갈래가 있습니다. 갈래마다 지원 군이 달라서, 몇 번 쓸 수 있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.

갈래	학교 수	지원 군	무엇을 하는 곳인가
영재학교	8	영재	수학·과학 연구. 고등학교가 아닙니다
과학고	22	전기	수학·과학 심화. 시·도 단위
외국어고	28	후기	전공어 + 인문·사회
국제고	8	후기	국제 계열 교과 · 영어 수업 비중
자사고	33	후기	학교가 교육과정을 스스로 짭니다

군이 같으면 한 번뿐입니다. 여기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납니다.

후기고 셋은 서로 경쟁 관계입니다

외고·국제고·자사고는 모두 후기고입니다. 일반고도 후기고입니다. 후기에서는 **한 곳만** 쓸 수 있습니다. 「외고 하나 자사고 하나 넣어 두자」는 **안 됩니다**. 이중지원입니다.

이중지원이 확인되면 **최종 합격 뒤에도 취소**됩니다. 다만 한 가지는 허용됩니다 — 외고·국제고·자사고에 쓰면서 **교육감 선발 후기 일반고 2단계에 함께 지원**하는 것은 이중지원이 아닙니다. 떨어졌을 때 갈 곳을 남겨 두는 장치입니다.

그래서 실제로 쓸 수 있는 횟수

제도상 **최대 세 번**입니다 — 영재학교에서 한 번, 전기고에서 한 번, 후기고에서 한 번. 순서도 시기가 정해 줍니다. 영재학교가 여름에 끝나고, 전기고가 가을, 후고가 겨울입니다. 앞에서 떨어지면 뒤로 갑니다.

다만 앞에서 붙으면 뒤가 닫힙니다. 과학고에 합격하면 **등록을 포기**해도 후기고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. 전기고 원서는 붙었을 때를 각오하고 넣으셔야 합니다.

출처: 각 학교 2027학년도 입학전형 요강(특목고 66교) 및 2026학년도 요강(자율형사립고 33교), 시·도 교육청 고입전형 기본계획. 학교 수는 2026년 8월 기준.

03 · 내신 5등급제

유리해 보이지만 단정할 수 없습니다

2026년 고1부터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. 「그러면 특목고가 유리해진 것 아니냐」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.

유리하다고 판단하는 흐름은 확인됩니다. 학업중단자 추이가 학교 유형별로 갈렸습니다.

학교	2025	2026	바뀜
외고	148	116	-21.6%
국제고	31	15	-51.6%
과학고	24	13	-45.8%
전국단위 자사고	47	43	-8.5%
지역단위 자사고	131	157	+19.8%
일반고	9,847	10,450	+6.1%

특목고에서 나가는 학생이 줄었고 일반고에서는 늘었습니다. 내신 부담을 어느 쪽이 크게 느꼈는지가 보입니다. 등급이 9개에서 5개로 줄면 한 등급의 폭이 넓어지고, 그만큼 「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」 일이 줄어듭니다. 학생이 몰린 학교일수록 이 변화가 크게 느껴집니다.

그런데 이것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. 두 가지 때문입니다.

하나 — 아직 한 바퀴가 안 돌았습니다. 5등급제는 2026년 고1에 처음 적용됐습니다. 고2·고3에서 주로 배우는 진로선택·전문 교과는 아직 겪지 않았습니다. **지금 숫자는 첫해** 것이고, 첫해 숫자로 3년을 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.

둘 — 반대 논거가 있습니다. 고2·3의 진로선택·전문 과목까지 상대평가를 함께 두므로 특목고의 내신 불리함이 **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**는 분석도 있습니다. 최종 유불리는 결국 **대학이 내신을 어떻게 반영하는가**와 **정시 선발 비율**이 정합니다. 그 둘은 아직 움직이는 중입니다.

출처: 학교알리미 공시 학업중단자 현황(2025·2026). 해석은 저희 판단이며, 위에 적은 대로 반대 논거도 있습니다.

04 · 판단 기준

이 셋을 먼저 물어보십시오

보내야 하나 마나를 남이 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. 다만 물어볼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.

Q. 하나 — 아이가 그 과목을 좋아하는가

과학고 교육과정은 일반고와 다릅니다. 고급·AP 과목이 들어가고 필수이수가 줄어듭니다. **과학이 싫은 아이에게는 3년이 갑니다.** 「대학 잘 가려고」 만으로 버티는 자리가 아닙니다.

Q. 둘 — 중간에서 버틸 수 있는가

특목고에 가면 **지금 반에서 1등 하던 아이가 중간이 됩니다.** 그 자리를 견디는 아이가 있고 무너지는 아이가 있습니다. 성적보다 이걸 먼저 보셔야 합니다.

Q. 셋 — 떨어졌을 때 어디로 가는가

과학고에 붙으면 등록을 안 해도 그해 후기고를 못 씁니다. **붙었을 때와 떨어졌을 때를 다 정해 두고** 넣으셔야 합니다. 급하게 정하면 그때부터 3년이 어긋납니다.

보내기로 정하기 전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

- ☐ 아이가 그 과목을 **시키지 않아도** 붙들고 있는가
- ☐ 지금 **학교 수업** 에서 남는 시간이 있는가 — 없다면 3년이 더 뻥뻥해집니다
- ☐ 가려는 학교의 **교육과정 편제표** 를 실제로 읽어 보았는가
- ☐ 그 학교가 **어느 군** 인지 알고 있는가 (영재 · 전기 · 후기)
- ☐ 합격했을 때 **다른 문이 닫히는지** 확인했는가
- ☐ 떨어졌을 때 갈 학교를 **정해 두었는가**
- ☐ 기숙 생활을 **아이가** 원하는가 — 부모가 아니라
- ☐ 「1년 일찍 졸업」 이 **판단의 이유가 아닌가**

마지막 항목이 「그렇다」 이면 다시 보셔야 합니다. 앞에서 본 대로 그 길은 상당 부분 막혔습니다.

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

특목고가 답인 아이가 있고 아닌 아이가 있습니다. 학원은 보내는 쪽으로 말할 이유가 있습니다 — 준비 과정이 길고 비싸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저희는 반대로 말씀드립니다. **아이가 그 과목을 좋아하지 않으면 보내지 마십시오.** 3년을 버티게 하는 것은 성적이 아니라 그것입니다.

05 · 자주 묻는 것

고입 학부모님이 실제로 하시는 질문

Q. 특목고 가면 내신에서 손해 아닌가요?

잘하는 학생이 모이면 **같은 실력으로 받는 등급이 낮아집니다.** 이건 사실입니다. 다만 그 손해를 어떻게 볼지는 **어느 전형으로 갈 것인가**에 달려 있습니다.

내신을 정량으로 세는 전형에서는 불리합니다. 반대로 **서류를 정성으로 읽는 전형**에서는 교육과정과 활동이 함께 읽힙니다. 일반고에 없는 과목을 들었다는 것이 거기서는 값이 됩니다.

그래서 답은 「**손해다·아니다**」가 아니라 「**어느 문으로 갈 것인가**」입니다. 그 문을 안 정하고 학교부터 정하면, 3년 내내 맞지 않는 옷을 입습니다.

Q. 일반고에서 1등 하는 게 낫지 않나요?

그럴 수 있습니다. 다만 「**1등 할 것이다**」가 가정이라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.

특목고에 갈 만한 아이들이 일반고로 가면 그 학교의 상위권도 그만큼 두꺼워집니다. 「**일반고에 가면 자동으로 1등**」은 성립하지 않습니다.

저희가 원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. 먼저 **아이가 3년을 어디서 잘 지낼지**를 보시고, 그다음에 성적을 보십시오. 반대로 하면 **버티는 데 3년을 다 씁니다.** 그리고 버티기만 한 3년은 어느 전형에서도 잘 읽히지 않습니다.

한 줄로 남기면

특목고는 **더 좋은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**입니다. 물어야 할 것은 「갈 수 있는가」가 아니라 「**거기서 3년을 쓸 아이인가**」입니다.

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공개 요강·공시 자료와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. 사실은 출처를 밝힌 자료에 근거하고, 판단 기준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다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. 제도는 해마다 바뀌니 지원 연도의 요강을 확인하십시오. 이 자료는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.